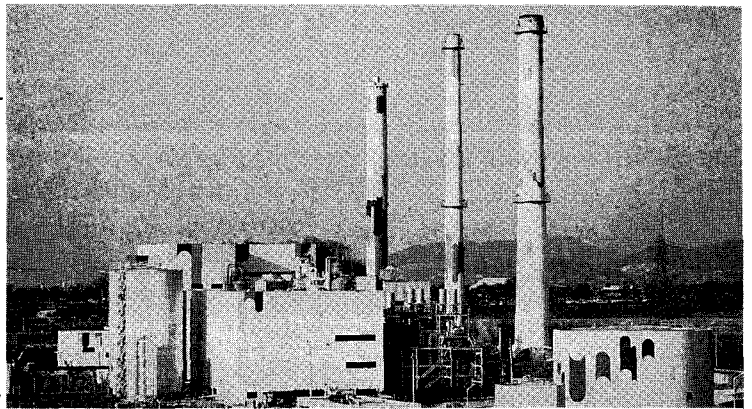


# 大宇엔지니어링을 찾아서

<목동 열병합 발전소>



## 特化산업분야 육성발전에 적극나서

### 정상의 종합엔지니어링 도약

(주)대우엔지니어링(사장 : 남정현)은 에너지분야를 비롯해 화공, 산업설비, 토목, 해양, 환경, 시스템자동화, 건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종합엔지니어링업체이다.

지난 1976년 10월 설립때부터 고급인력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현재 국내외에서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은 1천여명의 임직원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우엔지니어링은 지난 90년, 기술용역의 객관성 유지와 경영효율 향상등의 목적을 세우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대우그룹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사원 지주회사로 독립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엔지니어링업체로는 국내 1호인 전엔지니어링(주)를 흡수 합병하였다.

자본금 48억원, 연간 매출액 1천억원 규모의 사원 지주회사인 대우엔지니어링은 정상의 종합엔지니어링회사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 경험 풍부

대우엔지니어링은 국내의 동종업체에 못지않게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풍부한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이것이 사업수행에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5년동안 수행한 사업 내역을 분

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분야에서는 蔚山火力발전소 4, 5, 6호기(400MW×3) 건설에 참여한 것을 시초로 忠州水力발전소, 陝川 및 住岩水力발전소, 泰安火力발전소 등의 수·화력발전 및 연료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또한 열병합발전 프로젝트로서 계절화학 열병합발전소, 목동 열병합, 포항제철 열병합, 울산석유화학지원(주) 열병합, 고려아연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난방사업에도 참여, 국내 최초의 지역난방 프로젝트인 남서울지역난방을 시작으로 분당, 수서지구, 서울 강서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의 지역난방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외에도 각종 송배전 및 수변전설비 프로젝트와 함께 에너지 진단업무도 수행하였다.

化工분야에서는 平澤 LNG인수기지 및 배관망등 가스 및 석유관련사업과 이수화학 L.A.B. 플랜트, 한양화학 Naphtha Cracking Center 등 대단위 화학 및 석유화학 플랜트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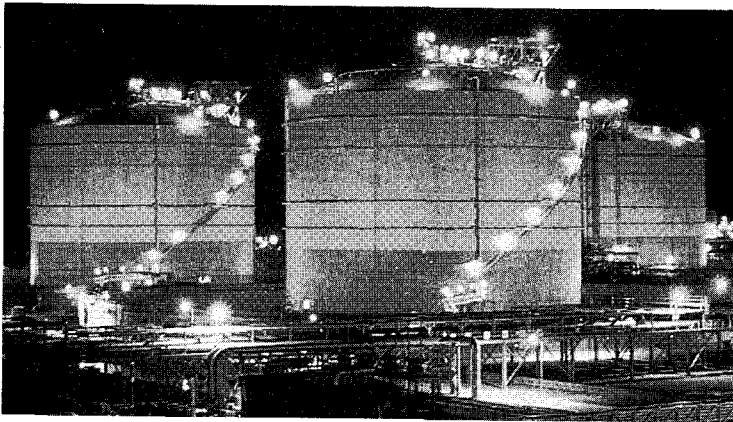
일반산업플랜트 분야에서는 오리온전기 컬러브라운관 생산공장, 대우전자 가전공장, 동양제과 생산공장, 대우자동차 생산공장 등 각종 기계, 전기, 전자 식품공장의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자동화분야에서는 컴퓨터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설비의 자동화사업을 활발

히 진행중에 있는데 포항제철의 철도 자동화 시스템을 국내의 기술로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크레인 무인 제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목분야에서는 공항, 도로, 지하철, 댐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 3,4호선 건설에 참여한 이래 계속해서 부산지하철 1, 2호선, 서울지하철 5,7호선, 대구지하철등의 지하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서울지하철 3, 4호선 수행중 터널 신공법인 NATM공법 설계기술을 개량하여 이란 철도터널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도입 기술을 재수출하였고 대만 지하철 및 고속도로 터널 프로젝트에도 기술을 지원하였다.

해양분야에서는 대우옥포조선소의 드라이도크 및 재킷, 안벽 등 항만 및 해양 구조물 프로젝트와 제주 해양양어장, 수영만 및 중문 마리나설비 등 해양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환경분야에서는 포항제철 제2분리공장 水處理사업을 시초로 하여 암사수원지, 뚝도수원지등 상하수사업과 고리원자력 복수탈염설비, 삼천포화력 수처리설비 등 수처리사업, 논공공단 폐수처리설비, 동해펄프 폐수처리를 비롯한 오, 폐수처리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외에 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방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도 많은 프로젝트 경험을 갖고 있다.



## 인공섬 축조기술, 레이저 이용 크레인 무인제어 연구등 박차

〈평택 LNG인수기지〉

# 우수인력 고루 포진, 기술연구소도 운영

### 21개국 해외시장 진출

대우엔지니어링은 설립 이듬해인 1978년 한국 최초의 플랜트 수출인 「수단 타이어」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효시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미주지역 등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에 적극 참여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리비아의 대단위 토목사업에 참여하여 리비아 우주비행장, 트리폴리 7,000 Housing 프로젝트, 트리폴리 중앙병원 입체교차로등 30여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그외에 수단 PVC플랜트 및 얼음제조공장, 카메룬 시멘트공장 등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중동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디랍방위군 주택공사 및 LLDPE 플랜트, 쿠웨이트의 해상가스 압축설비, U. A. E. 뉴듀바이 하수처리장, 파키스탄 천연가스 정제시설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며, 이란 반다르 아바스 철도터널, 바레인 해수담수화 플랜트, U. A. E. 아부다비 3단계 LNG프로젝트, 파키스탄 라호르-이슬라마바드간 고속도로 건설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농약공장, 무수프탈산 공장, SBR 생산공장, 태국의 카눔바지탑재식 화력발전소, 말레이시아 군통 천연가스 압축시설, 미얀마 전력설비, 싱가포르 세노코 소각설비, 중국 후퉁 냉장고공장, 대만 페놀/아세톤 및 복합탄화수소 플랜트, 지하철 및 고속도로 터널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미주지역에서는 알래스카 해수처리설비, 에쿠아도르 에스페란자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쌓은 국제적인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

###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

대우엔지니어링은 '83년 5월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집약화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박사 2명, 석사 6명, 학사 11명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 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프로젝트수행을 위한 연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핵폐기물 저장기술 연구, 터널 신공법, 블리스터 분석용 GC제작 및 분석방법, 시멘트운반선 하역설비 개발, 고강도 콘크리트의 실용화를 위한 부재 시험연구, Monitoring System의 표준화등을 비롯해 수많은 연구실적을 올린 바 있다.

요즘에는 인공섬 축조기술연구, 해양구조물 해석기법 및 설계기술 연구, 레이저를 이용한 크레인 무인제어 시스템 개발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실제 사업 수행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수행중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연구아이템을 설정하여 연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연구의 실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대우엔지니어링 기술보는 '85년에 창간하여 사내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해외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논문을 게재, 대내외에 배포함으로써 기술교류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 각 분야에 우수한 기술인력 포진

각 사업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가장 큰 자산으로 갖고 있는 대우엔지니어링은 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적기에 완수할 수 있었으며, 선진기술을 도입, 우리의 기술로 소화해냄으로써 지속적인 기술축적을 이뤄왔다.

대우엔지니어링은 기술인력의 정예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능력있는 사원들을 해외 우수 대학에 유학을 보내는 한편 KIST등 국내대학과 연구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고급 두뇌의 유치에도 주력하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외 엔지니어링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낙후된 국내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 세계 정상의 엔지니어링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대우엔지니어링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적인 기술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특화된 사업분야를 육성하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까지를 포함한 턴키수행 체제(E/C화)의 확립에도 주력하고 있다.